

개의 건강관리

조 준 행*

정신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애완동물의 사육은 특히 어린이들의 정서안정과 고혈압, 심장병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효과가 있으며 소외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로서 또한 우울증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애완동물 특히 애완동물의 사육은 늘어날 전망이다기에 개 사육에 관한 전반사항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개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여러 학설이 있으나 기원전 약 6,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개는 사람에게 의해 사육되기 전 들개로서 야생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 기원전 2,700년경이 되어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들이 개를 집에서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사육동기는 수렵본능을 이용한 먹이의 획득을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에 있어 이러한 수렵본능은 아직도 남아 있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육해오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불가결한 가축이 되었는데 처음에 지니고 있던 야생동물의 습성과 몸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순화되어 가축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를 기르게 된것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원전 수세기경으로 추정되며 그위

용도도 다양해졌다. 요즘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기르다가 보다는 좋은 친구나 가족의 일원으로써 사랑하고 있다. 병이나서 내원한 경우만 보더라도 개는 한마리인데 따라오는 사람은 가족 전체가 오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개 사육이 자신의 정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특히 밀집된 주택지에서는 이웃을 생각해야겠으며 집밖에서는 절대로 풀어 기르지 않도록해야겠다. 개가 인간과 밀접한 사이인 만큼 일화 또한 아주 많으나 일화의 소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다.

건강한 개

여러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났을때 가장 우수하고 튼튼한 모양을 판별하는데는 생후 20~25일 사이가 적당하다. 그것은 이때의 강아지가 성견이 되었을 때를 예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아지를 선택할때는 너무 몸형태에만 집착하지말고 성품이나 몸놀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친숙성에 더 유의함이 옳다.

일설에 의하면 먼저 태어난 순으로 잘 자란다고 하며 특히 골격이 크고, 발이 크며 다리가 긴 강아지는 크게 자라게 된다고 한다.

또 두개골이 큰 강아지는 대체로 영리하지만 전체 모습에 비하여 두개골이 너무 큰것은 좋지 않다. 특히 하운드종과 요크셔테리어 등 머리가

*청운 조준행 동물병원

작은 종류의 강아지는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강아지의 털모양은 그 개의 품종·계통에 의한 표준치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 강아지의 짙은 소리가 클수록 그 강아지는 건강하고 짙은 소리가 약한 것은 허약한 강아지로 보고 있다.

또 건강한 강아지의 판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운차고 활발한것
- ② 먹이를 잘 먹는것
- ③ 척추가 곧은것
- ④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부드러운것
- ⑤ 항상 코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것
- ⑥ 사람을 잘 따르는것
- ⑦ 기침을 하지않고 눈이 깨끗한것
- ⑧ 입안과 잇몸의 빛깔이 선홍색인것
- ⑨ 숨소리가 고르고 향문이 깨끗한것
- ⑩ 잘때 몸을 편안히 하고 자는것 등

건강한 강아지를 선택하는 조건은 대체로 위와 같으나 선택할 때 눈으로만 보지말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안아보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강아지는 만져보면 몸에 탄력이 있다. 따라서 강아지를 살때에는 개를 많이 길렀거나 잘 아는 전문가 수의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열심히 관찰하여 체질, 성능, 기질 등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 집

실내에서 기르는 개집과 실외에서 기르는 개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개집은 개가 안락한 수면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고 년중 그 고장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 개집에는 고정개집과 이동개집을 만들수가 있다. 설계는 일사조진, 기온, 환기, 건조, 우기, 추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1)고정 개집

고정된 개집은 바닥이 단단하고 평면보다 조금 높아 물이 고이거나 비가 올때 다른곳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습한 기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며 하루에 한번 30분이상은 햇빛이 비취쳐야 한다. 습기가 있는 토지는 각종 미생물이 발육하기 때문에 개의 발육에 좋지 않으며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 지붕이나 외벽은 더위와 추위를 막을수 있어야하고, 개집안은 통풍이 잘되게 창도 적당하게 뚫어서 여름에는 열고 겨울에는 닫고, 개집 입구도 앞가리개를 만드는 정성이 필요하다. 마당은 넓으면 마사토를 깔고 좁으면 시멘트로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세메락스가 이상적이다. 단단한 판자를 깔때에 개의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구멍을 뚫어두면 그곳으로 각종 오물이 떨어져서 청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집 방향은 동남향이 이상적이고 삼면은 철책이나 철망으로 둘러싸고 그 높이는 개가 뛰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한다. 또한 철책은 개가 땅을 파고 나올 염려가 있음으로 상당히 깊게 물어야 한다.

2)이동 개집

이동 개집이란 보통 가정의 현관이나 마당끝에서 볼 수 있는 개집으로 계절이나 필요에 따라 적당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집이다. 이때 개집 지붕을 조립식으로 하면 청소할때 편하다. 그러나 병에 걸리던지 강아지를 출산할때 여러 가지로 불편하므로 따로 산실 등을 준비하여둔다. 또 비 바람이 직접 못들어가게 개집구조를 만든다.

3)대형 이동개집

이동 개집의 결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이동식 개집이다. 이것은 정면의 넓이가 1.5~2m이며 안길이 1m인 개집을 2개의 방으로 하여 왼쪽은 0.5~1m로 안문으로 하고 우측의 한방은 거실 또는 침실로 한다.

양쪽의 방사이에는 30cm정도의 칸막이를 하여 출산할 때는 칸막이를 빼낼수 있게 한다. 또한 우측의 침실위로 높이 30cm정도의 미닫지를 2개 만들어 여름에는 철망 미닫이를 끼고 모기를 예

방향과 동시에 환기를 해주며, 겨울에는 유리로 된 미닫이를 끼어 추위를 막고 동시에 따뜻한 일광을 충분히 받도록 한다. 개집의 환기는 개집 뒤편으로 높이 20cm 길이 50cm 정도의 철망 창문을 바닥에서 위로 열어 놓으면 환기가 더욱 잘된다. 개집의 높이는 지면에서 30cm이며 지면은 처음에 흙을 파내어 모래를 깔고 그위에다 목탄이나 석회를 깔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러한 방법은 개집이 건조하게 하기위해 필요하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한 개집을 개방적으로 만들면 좋다. 개집내에 있던 짚이나 수건은 2~3일마다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다.

4)집안에 있는 개집

집안에서 사용하는 개집으로서 대개 소형견이 이용하고 있다. 집안에는 바람이나 비 그리고 추위, 더위를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붕이나 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 옥내에 있는 개집은 꿀상자나 사과상자 또는 개 크기에 따라 과일 바구니도 상관없다. 그리고 옥내 개집을 두는 장소는 되도록 미끄러운 장판위를 피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복도가 좋다. 개집을 장판위에 두면 겨울에 사람의 이불에 파고드는 습관이 생겨, 오히려 개의 몸이 약하게 되고 집안 전체를 불결하게 한다.

작은 애완견일지라도 길들이기 위해서는 개집을 일정한 곳에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개 먹이

개를 사육하는데 있어 소박한 식사습관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통 애견가들은 소박한 먹이만 먹이면 개의 몸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호사한 음식을 먹는다고 모두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유가 같아 소박한 식사로도 영양가만 충분하다면 별문제가 없다.

개는 사람에 의해 길러지기 시작한후 육류와 곡류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길들여졌으나, 고기 종류를 더욱 좋아한다. 개의 먹이에는 식물성 먹

이와 동물성 먹이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동물성 식품으로 짐승의 고기(말고기, 토끼고기, 양고기, 쇠고기, 고래고기 등), 새고기(닭고기, 오리고기의 산새고기), 물고기, 계란, 우유종류 등이 있다. 식물성 고기에는 콩종류(두부, 콩), 과일종류(사과, 배 등), 채소류(양배추, 당근 등), 해초류(미역, 다시마 등)등이 있다. 특히 개가 좋아하는 것은 동물성 식품으로 개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개에게는 동물성 식품을 50~70%, 식물성 식품을 30~40%의 비율로 먹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먹일 수 없으므로 개가 좋아하는 것과 주의해야할 사항만을 적어두기로 한다.

① 쇠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등은 될수 있는대로 잘게 썰어서 익혀 주도록 한다. 가끔 신선한 쇠고기를 주되 기생충감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등을 즐겨 먹지만 자칫 잘못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하여 털이 빠지거나 습진의 원인이 되는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③ 물고기 통조림도 좋아한다.

④ 모든 개는 계란이나 우유도 좋아한다. 영양분이 많아서 매일주면 효과가 있지만 설사를 하거나 변이 연할때는 우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⑤ 식물성 식품중에는 빵을 제일 좋아한다. 빵은 매일 먹어도 좋다. 우동, 쌀밥 또한 매일 먹어도 상관없다.

⑥ 야채는 특별히 따로 먹이지 않아도 좋지만 필요한 비타민이나 칼슘을 섭취시키기 위해서 다른 음식과 섞어주면 소화도 돕고 변비도 막는 구실을 한다.

이상과 같이 개에도 사람에서와 같이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므로 편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될수 있는대로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 고추나 후추 등 자극이 강한것과 날카로운 생선가시나 날카로운 뼈등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먹이의 횟수는 일정하지

않고 개의 크기나 나이 등에 따라 먹이의 량과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본래 종류에 따라 많이 먹는 것과 적게 먹는 것 운동량이 심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있어 먹이량을 조정하는 참고가 되나 어느 크기의 개를 막론하고 몸에 비해 위가 작기 때문에 되도록 먹이 횟수를 많이 하고 1回量은 적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1回 먹이량은 옆배가 조금 나올 정도가 좋다. 즉, 생후 2~3개월까지는 하루에 4~5회 정도, 4~6개월 된것은 3~4회 정도, 6~12개월 된것은 2~3회 정도, 일년 이상된것은 1~2회 정도면 충분하다. 개는 먹이를 먹은후나 운동을 한후에는 물을 먹어야 함으로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다른 그릇에 별도로 신선한 물을 항상 채워두도록 한다.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세가지 영양소가 절대 필요하다.

단백질은 짐승의 고기, 물고기, 조갯살, 계란, 콩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짐승의 피부 지방층에 있으며 후자는 참깨, 콩, 야채, 씨앗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괴혈증, 야맹증 또는 빈혈에 걸리기 쉽다. 특히 비타민A는 당근이나 시금치, 무우잎에 많고 비타민B는 쌀겨, 돼지고기, 무우잎에 많으며 비타민C는 신선한 청야채, 과실에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개는 날음식을 좋아함으로 기생충 감염의 염려만 없으면 생으로 주는것이 이상적이다. 개의 먹이로는 고기외에 쌀이나 감자 등 무엇이든 좋으나 이 모든 먹이를 분식으로 하든지 껌질을 짓눌러서 죽상태로 해서 주면 영양면에서 볼때 훨씬 효과적이다. 또 개에게 먹이를 줄때 개의 식성에 따라서 간장이나 설탕, 소금 등으로 맛을 내면 식욕도 훨씬 좋고 건강에도 좋다. 개가 필요로 하는 먹이의 양은 개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하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개의 먹이 량은 다음과 같다. 중대형견의 먹이의 이상적인 비율은 고기 250g,

쌀, 보리밥 500g, 야채 80g, 염분 찻수저로 반 정도 그외에 우유 1~2dl 또는 감자 종류도 약간 주는것이 좋다. 일주일중 하루는 가벼운 먹이 즉, 빵, 우유 등과 물고기, 채소 등을 준다. 또한 닭의 머리, 소, 돼지의 간장을 잘게 썬것은 영양분이 많고 개의 건강상 좋은것이므로 연하게 될때까지 잘 삶아서 맛을 내어 가끔주면 더욱 좋다. 개의 먹이도 인간과 같이 모든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먹이를 주도록 유의한다.

최근 한국에도 사람의 인스턴트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준식을 고려해서 만든 독푸드(개사료)가 있음으로 이것을 적당히 주는것도 좋다.

지금 한국에도 미국, 영국, 일본과 제휴하여 몇가지의 개밥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편리하다. 이것을 주면 개 몸의 냄새는 물론 개똥에서도 냄새가 별로 나지않아 매우 편리하며 이것만 가지고도 개의 성장이나 번식에도 그 성과가 대단히 좋다. 영양식으로 고기통조림도 있다. 개의 먹이는 남을 정도로 많아도 없되지만 항상 부족해도 제대로 자랄수 없다. 먹이의 메뉴는 주인이 먹는 음식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먹이의 양이나 종류는 일반적인 표준치이나 개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으로 이것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든가 우리집 강아지는 어찌서 이것보다도 덜 먹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먹이는 개의 운동량, 식욕 등을 감안해서 적당히 조절해 주도록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는 식빵 등을 즐겨 먹음으로 이것을 토스트로 하여 버터 등을 발라주면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잘 먹는것 한가지만 주다보면 식사습관이 아주 나빠지게 되어 편식하게 됨으로 기르는 개가 편식하지 않도록 풀고루 주어서 기르는 것이 좋다.

개의 운동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배변은 용이하게 한다. 대체로 운동은 아침과 저녁 2회로 1~2시간 정도 견게하든지 달리게 하는것이 좋다.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의 건, 인대 등이 차차로 위축

되어간다.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심해지면 개의 동작이 둔해지며 신경질적이 되어 필요이상으로 사람에게 쫓어댄다.

지금 가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은 옛날 산이나 들판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수 있었는데 현재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사육하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형 견

세인트, 버나드, 그레이트 덴, 아게다견 등의 대형견은 작업견으로서 사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중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씩 1회에 30분내지 1시간 정도의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시키는 장소로 대형견을 어린아이들이 많은 공원이나 도로 등에서 운동을 시킨다면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질겁을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한적하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 운동시키는 것이 좋겠다.

성견의 운동을 불규칙하게 하게되면 개의 건강상 좋지 않으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시함이 좋다. 또 그레이트 덴은 어느 정도 자전거운동에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견 종류는 자전거운동에는 부적합하며 걸어서 천천히 운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적인 운동은 교외의 넓은 야산이나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기른다면 운동시키기도 좋다. 간혹 부득이하게 시내 중심의 공원이나 사람이 없는 도로 등에서 운동을 시킬때도 반드시 개줄을 매어 만약 풀어 놓더라도 이름을 부르며 주인에게 뛰어 오도록 길 들여 놓아야 한다. 배설물을 아무곳에나 배설했을 경우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또한 거리의 미관과 생활보전에 중요하다.

2) 중형 견

중형견인 포인터종, 셋타종, 복사 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30분씩 자전거에 의한 견인운동을 시키거나 넓은곳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수 있게 하는것이 좋다.

자전거운동은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운동량이

많으므로 능률적이다.

우리나라의 재래종 개는 운동량이 조금 적어도 괜찮으나 셰퍼드같은 민감한 개는 운동량이 부족하면 근육골격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져서 쓸때 없이 쫓아대거나 침울해 질수가 있다. 그러므로 셰퍼드견 등은 정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같이 소란한 곳에서 사육하게 되면 자동차 등 여러가지 소음에 시달려서 감각이 무디어질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자동차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3) 체구가 작은 개

몸이 비교적 작은 애완용 개는 그다지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느 사람은 방 안에서 기르는 개를 운동시킨다고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그 개를 위해 백해무익하다. 종류에 따라서는 닥스훈트와 같이 짧은 발을 가진 개도 대개 집안외에서의 운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개는 종종 정원에 내놓고 공을 가지고 놀게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발이 발달되어 있는 개나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개는 맑은 날에 종종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공원이나 풀밭에서 놀게하는 것도 좋다. 특히 보통때에 늘 좁은 개집에 묶여 있는 개는 대개 변을 보고 싶은것을 참게 되는데 운동하러 나갈 기회가 없으면 용변을 참다못해 개집 주위에 배설해서 주위가 불결해진다. 너무 오래 동안 용변을 참아서 방광염이나 거대직장 확장증으로 오는 곤욕스러운 만성 변비로 시달리게 되면 모든것이 짜증스러워진다.

모든 개는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아침, 저녁 2회 이상의 운동이나 산책은 규칙적인 배변을 하게하며 주위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개 미용

기르는 개를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목욕이나 털손질이 필요하다. 사람이 머리를 다듬고 목욕을 하듯이 기르는 개도 정기적으로 미용을 해주어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때에 몸을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많은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다.

매일 개의 몸을 보면 식욕이 없어지거나 열이 있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침울하였을 때 또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피부색이 변화되었을 때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벼룩, 이, 진드기 등이 기생하여 있을 때를 빨리 알게 되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다. 개의 털은 사람의 옷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의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손질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개의 털은 계속 조금씩 빠지므로 시간을 아끼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작은 종류의 개 일수록 주인의 손질을 좋아하는데 솔질이나 빗질에 익숙해지면 개는 자신을 내맡기고 손질해 주기를 기다린다. 또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처음 한동안은 싫어하기도 하나 익숙해지면 오히려 즐기기도 한다.

개를 보살피 준다는 것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개 미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구 즉, 전기이발기, 빗, 가위, 개 전용 발톱깎기, 부러쉬, 스탁카 등이 필요하다. 털이 긴 개는 스탁카(slicher) 부러쉬(dog brush)로 손질을 한 다음 빗으로 털을 잘 정돈시킨다. 솔질을 하면 비듬이나 털에 붙은 먼지 등을 털어쫓아 동시에 벼룩, 이 등이 떨어져 나가며 피부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도와 주기도 한다. 또 개의

털이 습기에 젖어 있을 때는 마른 타올로 전신을 맛사지 해주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피부나 털이 쉽게 더러워지므로 자주 목욕시켜 주는 것이 좋다. 목욕은 식사 2시간 전후에 하며 가끔적이면 바람이 덜 불거나 밖의 공기가 차지 않고 흐리지 않은 날이 적당하다. 목욕비누로는 개 전용비누와 샴푸·약용샴푸 등 여러가지로 나와 있으나 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어린이용이나 사람 목욕용 비누를 사용하는데 개털이나 피부는 사람의 피부보다 10~20배나 약함으로 아주 소량씩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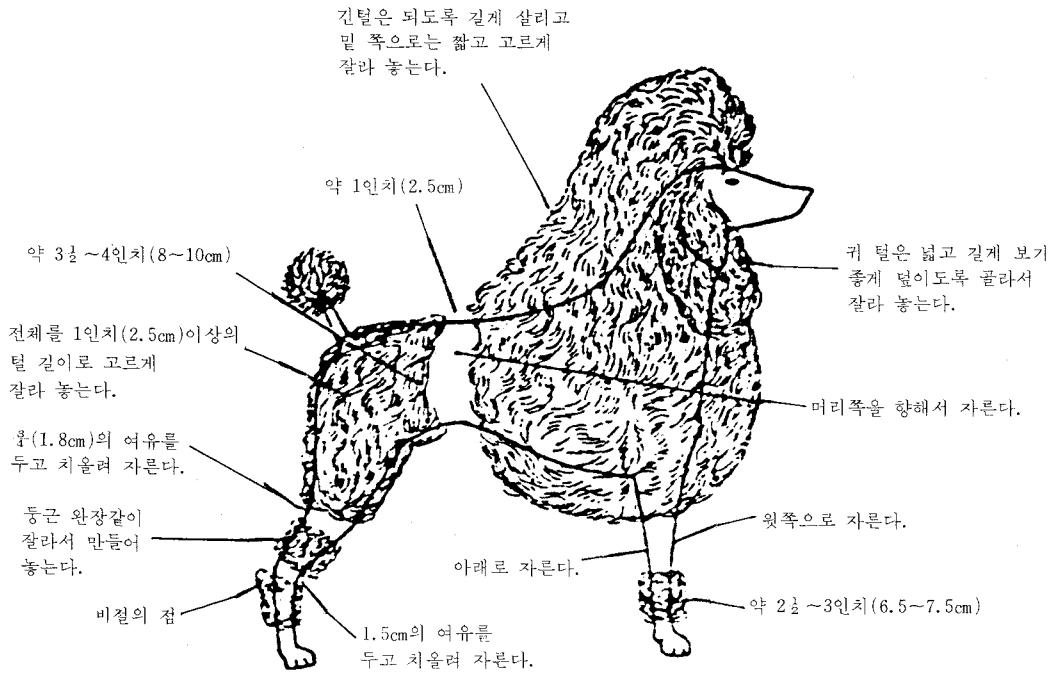
개의 발톱은 매일 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멸되거나 방안이나 바닥이 부드러운 곳에서 기르는 개는 자주 깎아주어서 발톱이 옆으로 휘어지거나 발의 자세를 나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긴털을 가진 개는 귀의 안쪽 털은 잘라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미리, 귀병을 방지한다. 입과 치아는 식사후나 운동후 물에 젖은 타올로 잘 닦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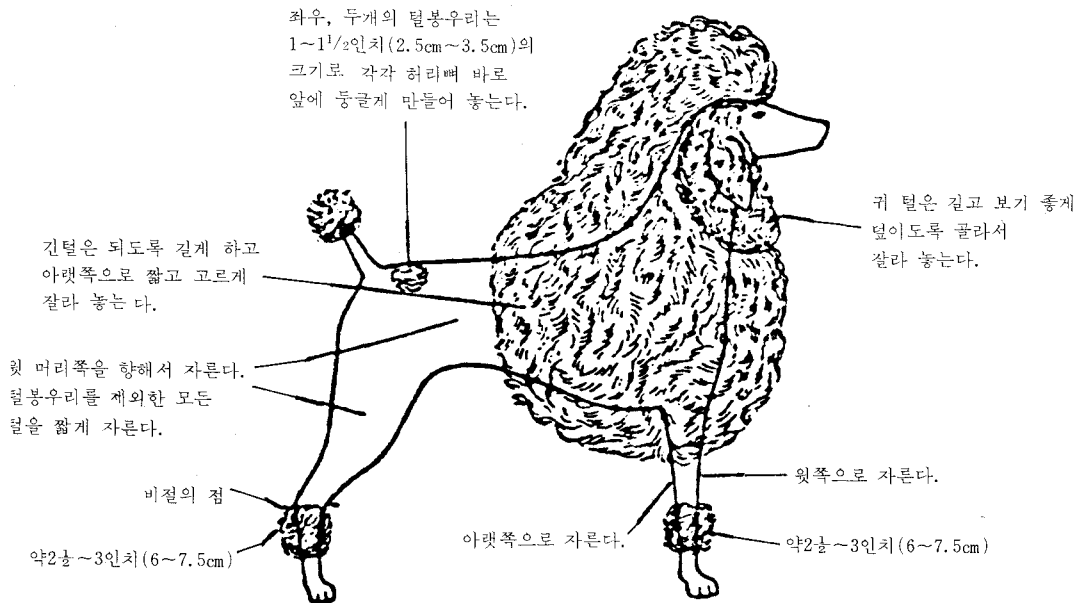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트리밍(미용)은 개를 보다 위생적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컷양스와 멧을 내게하여 관상의 미를 즐기기 위한 것이다.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개의 개성을 잘 살려서 털을 손질한다면 개 자신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감을 주게 되므로 권장하고 싶다. 예로써 푸들견의 트리밍의 기본형은 그림과 같으며 더욱 상세한 것은 다른 참고자료에서 보충하기 바란다.

푸들犬種 트리밍의 基本型

English Saddle



Continental Clip



머리부분의 모든것
(로얄 더취를 제외한 모든것)

V자를 반대로한 형태로
1인치(약 2.5cm)의 길이로
자른다.



목줄기와 주둥이에 아래 부분의
털을 모두 깨끗이 잘라 준다.

목덜미로 4~5인치에서
두 귀의 뿌리(10cm~13cm)까지
올려 자른다. 둥근
기본선에서 목줄기의
깃털을 전부 자른다.

발부분의 모든것
(켄넬크립을 제외한 모든것)

주위 전부를
올려 깎는다.



약 1인치(약 2.5cm)

꼬리의 모든것
(어떠한 형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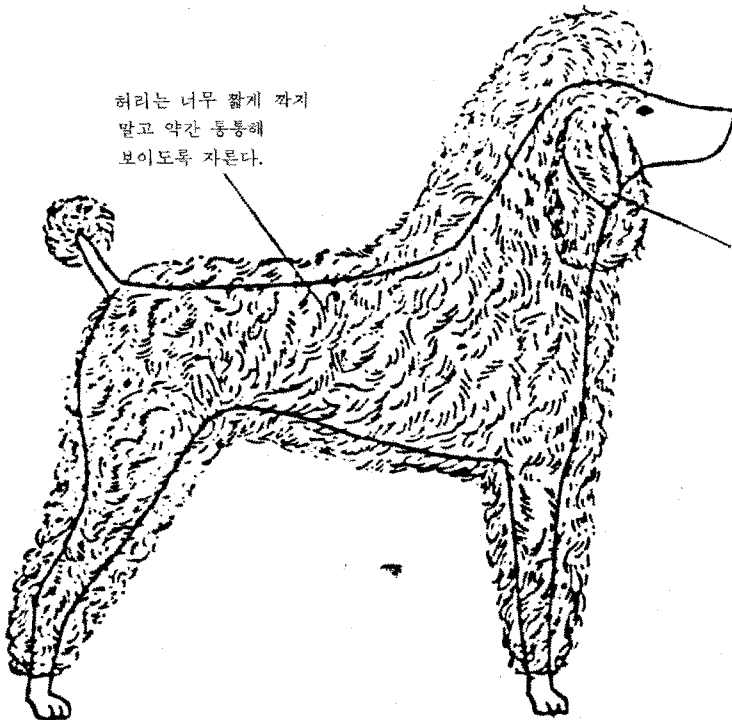
약 3인치
약(7.5cm)



동글게 공같이 가위로
다듬어 만든다.

뒷쪽은 올려 자르고
앞쪽은 내려 자른다.

허리는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약간 통통해
보이도록 자른다.



귀털은 길게 보기
좋게 덮이도록 풀라서
잘라 놓는다.

Puppy Clip